

조용전의 인물 형상

김용철(부산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세 종류의 여성 |
| 2. 천하국가의 인물 | 5. 마무리 |
| 3. 세외인 | |

1. 머리말

이 글은 영웅소설 중 조용전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살펴보려는 한 시도이다. 조용전은 영웅소설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이다. 그 인기만큼이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용전은 국문학 연구 초기부터 주목받았고 군담소설과 영웅소설 연구가 깊어질수록 조용전 연구의 깊이와 폭도 더해왔다.

기존의 조용전 연구는 구조,¹⁾ 유형,²⁾ 고전교육과 문화콘텐츠³⁾ 등으로 확

1) 영웅소설 내지 조용전에 대한 연구는 너무 많아 요약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이 글을 쓰는 데 특별히 참고한 몇몇 논저만을 밝히기로 한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조시중, 「조용전의 작품구조와 그 수용적 의미」,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7.

전성운, 『조선 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이강엽, 「군담소설 서사구조론의 전개와 연구방향」,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새문사, 2005.

장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조웅전 연구는 거의 완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논의들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조웅전의 인물들을 다루는 데 있어 너무 영웅인 조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웅소설은 영웅이 어려서 고난을 겪고 성장하여 능력을 얻고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원하는 서사구조를 가진 고전소설군이다. 따라서 서사 안에서 영웅인 조웅의 독점적인 지위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웅은 영웅소설 중 상당히 긴 장편에 속하며 작품 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내적 위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가치와 특성의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조웅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선후기 내지 말기라는 시대의 여러 다른 서사체에 등장하는 인물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조웅, 이두병, 장소저 등은 동일 시대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동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큰 인물형의 조웅전적 변이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조웅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 천하국가, 세외인, 여성이라는 세 부문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인물들은 조웅전에서는 조연들이다. 하지만 가장 많이 읽힌 영웅소설인 조웅전의 조연들이라는 점에서 그 대중적 파급력은 다른 어떤 작품의 주연보다 더 중요하다.⁴⁾

-
- 2) 김현양, 「조선조 후기의 군담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3) 이용진, 「고전소설 조웅전의 에듀게임(Edu-game)화 방안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승희, 「조웅전과의 만남과 상상력 교육」,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안기수, 「영웅소설 조웅전의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 『어문논집』 46, 중앙어문학회, 2011.
- 4) 이 글에서 대본으로 삼은 조웅전 이본은 완관 계묘본이다. 길이가 경관에 대해 길고 다양한 인물군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천하국가의 인물

먼저 천하국가와 관련된 인물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송문제·송태자와 이들을 따르는 충신들, 위왕과 그의 신하들, 서번왕과 그의 신하들, 이두병과 이두병을 따르는 인물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조용이 경험한 하층의 인물들, 그리고 문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작품의 향배를 결정하는 백성들의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중 이두병과 조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천하국가는 송문제의 죽음 이후 이두병이 황위를 찬탈하고 송태자를 귀양 보내는 식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은 거의 무리없이 아주 순조롭게 된 것으로 보인다.⁵⁾ 이두병을 승상으로 중용한 송문제나 송문제의 사후 나라를 빼앗기고 귀양을 간 송태자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무력하다. 모든 것은 이두병의 손에 있다.

하지만 작품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는 이두병은 조용과 적대할 때 지극히 무기력하다.⁶⁾ 그는 군사적 재능은 한 푼도 없고 자신의 신하에게 배신당해

5) 일일 묘신이 노소 업시 시종덕의 모와 국수를 의논홀 시 이두병이 역모의 쓰슬 두고, 옥식을 도모코즈 하니 도령빅관이 그 말을 좃지 안이허리 업난지라. 십월 십삼일은 문제의 탄일이라. 천관이 모다 종일토록 국수를 의논홀 시 이두병이 문왕 이제 동궁의 나히 팔세라. 국스 하등 중스관디 팔세 동궁의 직위가 스심(식삼?) 위티홀지라. 법영이 점쇠홀고 스직이 위티홀 지경이면 군등은 엇지허려 홀 난요. 제신이 일시의 답왈 천하난 비밀인지 천하요 도령은 무십디지도령이라. 이제 엇지 팔세 동궁의계 이을 전허리요. 쏘홀 황제 봉홀실 썩 승상과 섭령허라 홀 온 유언이 계신들 국무이왕이요 민무이천이오니 엇지 섭정을 두릿가. 제신의 말이 여출일구라. 이제 국스 폐호은지 여러날이라. 복결 승상은 전인파을 전수호와 옥식을 바드시고 위을 전호와 도야 신민의 실망지탄이 업게호오소서 하며 모든 디소관원이 일시의 홀당 복지스빅하니 위엄이 상설갓든지라.

6) 조용이 일대 삼형제를 죽이고 황성으로 진격해 오자 이두병 정권의 허약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견필의 황제와 제신이 디경황망하야 아무리 홀 줄를 모로고 서로 도라보며 이 일을 엇지 허리요 홀고 두서를 정치 못허거날 티자 니관 등 오형제 출반주왈 폐호는 근심치 말으시고 이제 장약즈를 틱출하야 선봉을 하시웁고 폐호 자장격지 홀옵소서. 급홀를 면홀옵소서……황제 홀 세 업시 군장을 틱취

사로잡혀 처형된다. 송을 대신해 새 왕조를 개창한 썸인 그는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황위를 찬탈할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대답은 그가 권신형 찬탈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승상으로 오랜 세월 권력 기반을 닦아왔으며 아들 5형제가 모두 조정의 중신이다.⁷⁾ 그는 적대자인 조정인을 참조하여 자살시킴으로써⁸⁾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황제인 송문제도 그를 함부로 못하며 그의 아들 이관은 황제가 조정인을 추양하는 것을 대놓고 비난한다.⁹⁾

아마 그의 모델은 외척으로 권력을 장악한 왕망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그는 송문제의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으며 송문제가 죽자 그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신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린 태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조용전에서 해결하기 매우 곤란한 문제가 나온다. 이두병은 황위를 찬탈한 것 이외엔 별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그는 간신이었으며 찬탈자였고 송태자를 죽이려 한 것이 다이다. 백성을 과도하게 수탈한다든가 주지육림, 호화한 궁실공사 등으로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은 안 보인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두병 정권에 매우 협조적이다. 가는 곳마다 조용 모자를 잡아서 상을 타려는 사람들의 눈길이 번뜩인다.¹⁰⁾ 그의 신하들은 막다른 곳에 다다르지 않는한 배신하지 않는다.¹¹⁾ 찬탈했음에도 이두병의 권력기반

흐시며 친형하려 흐시니 감이 응호는 즈 업더라.”

- 7) 원력 이두병은 아달이 오형제라. 벼살이 다 일품의 거호고로 만조제신이 다 형제를 두려 이관등 말되로 흐는지라.
- 8) 이적의 간신이 시기하야 우승상 이두병이 참조호를 보고 승상이 음약하야 죽으니
- 9) 병부시랑 이관은 이두병의 아달이라. 시위호였다가 복지주할 시신 중의 엿지 도정인만흔 신하 업스오와 옥면의 비회 가득흐시니 신진 도리에 엿지 충넬묘라 흐시릿가. 이후는 거동을 마르시고 충넬묘를 회파호여지이다.
- 10) 역촌 스타드리 모다 이르되 신황제 각도 열읍의 형관하여 도웅 모즈을 잡아 밧치면 천금상의 만호후를 봉할이라 흐니 우리도 천형으로 잡으면 벼살하리로다 흐며 형인을 살피난지라.
- 11) 동관의 다다르니 전군이 보호되 승상 최식과 주변이 팔만 덕군을 거느려 길을

은 의외에도 매우 튼튼했던 셈이다.

이런 이두병 정권은 어떻게 해서 허물어지는가? 그것은 조용의 압도적인 무력에 의해서이다. 한군데서 결정적인 모습이 포착된다. 조용이 송태자를 구원하고 나서 황성으로 진군할 때 “츠시 도원슈 군스를 직속하여 황성으로 향할 시 소과 열읍이 망풍 귀순하니”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때부터 이두병의 지방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했으며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국가권력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그런 사람에게 국가권력의 가혹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망간 조용과 왕부인의 고난이 이를 말해준다. 조용에게 이두병 정권의 지방관과 백성들이 가담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은 이러한 가혹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대체 권력이 형성되는 순간이다. 조용 자신이 이두병의 권력 바깥으로 나가면서 당했던 그 끔찍한 공포의 시간들을 사람들이 다시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 조용은 백성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점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다. 사실 앞서 말했듯 조용전에서 이두병이 나쁜 것은 조용 모자를 괴롭혀서이고, 황위를 찬탈해서이고, 송태자를 죽이려고 해서이다. 천하를 상대로 하는 거대한 스케일에 비하면 어찌면 너무도 몇 사람에게 한정된 나쁜 짓이라 할 수 있다. 위국을 침략한 서번왕이 오히려 훨씬 더 악인다운 악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천하를 가진 이두병이 아니라 조용 모자와 송태자의 고난에 자신들을 합치시킨다. 무엇보다 백성을 위해 살았던 충신 조정인의 가족들의 운명에 대해 지극히 호의적이다.¹²⁾ 또한 송태자라는 정통성을 가진 황위계승자에 대해서도 호의적이다. 이들을 괴롭히는 이두병은

막는다 흐거늘 원슈 살펴보니 군용니 엄숙하여 전일 당덕의 늪 아니라.

12) 왕부인과 조용이 흘러다니다 어느 마을에서 만난 조정인의 만고불망비가 이를 말해준다. “부인 모즈 나아ᄃ 비문을 보니 빗뭍이 비 마즌 듯흐거날 괴이하여 즈상히 보니 금즈로 식여시되 퇴국 출신 병부시랑 겸 각도 진무어스 도정인의 만고불망비라 흐고”

당연히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옹이 가진 구원자로서의 특징은 충신과 정통왕조에 기반한 것이었다. 충신과 정통왕조라는 것은 단순히 명목상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력한 물질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튼튼한 기존질서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조옹은 이에 기반하여 상당히 튼튼한 이두병 왕조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두병은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랬다면 작품에 여러가지 언급이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왕조의 정통성을 완전히 대체할 민심이라는 기반을 닦는 데는 실패했거나 그만한 여유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기 전에 조옹이 그를 제거했던 것이다.

좀더 찬찬히 따져보아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옹전에서 조옹과 이두병의 대결은 조선후기 현실에서 권력층 내부 권력다툼이 변형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천하국가를 멸망에서 건지는 대단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석연찮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 권신찬탈자로서 이두병의 정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두병은 조옹의 적수가 아니다. 그는 어린 조옹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영웅인 조옹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지킬 영웅적 힘은 없다. 그는 그냥 권력자일 뿐이다. 이두병은 그가 황위를 찬탈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송문제 아래에서 차지했던 권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필자는 이두병이 조옹전의 문면에서 보이듯이 천하국가를 멸망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인을 몰아내 죽이고 그의 당파를 조정에서 축출하고 그의 가족을 몰락시킨 사람 정도라고 추정하고 싶다. 조옹의 복수는 온갖 현란한 군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존재밖에 안되는 이두병을 조정에서 몰아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옹전은 당파싸움의 우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¹³⁾ 조선후

13)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서대석, 「군담소

기 어느 당파도 백성을 적극적으로 해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서로 상대를 소인당, 자신들을 군자당으로 몰아세워 싸웠던 것이다. 조용전은 이두병의 당파에 의해 몰락한 조정인의 당파가 한 10년쯤 힘을 비축해 다시 관세를 뒤집은 것의 우의적 표현인 성격이 짙다. 거기에 조정인의 아들 조용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물론 작품을 문면 그대로가 아니라 우의의 표현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작자나 독자가 작품 속에 현실의 어떤 면을 반영했는가 또는 작품을 보면서 구체적인 현실의 어떤 면을 떠올렸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의의 본체를 찾아보는 것도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조용전은 분명 온갖 악인들을 등장시켜 선인들을 박해하게 하고 다시 그들을 통쾌하게 무찌른 걸이야기와는 달리 당파싸움의 모습을 현란하게 운색한 측면이 있다.¹⁴⁾ 그리고 이것은 권신형 찬탈자 이두병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한다.

3. 세외인

다음으로 조용전에 등장하는 세외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용전에는 세상 밖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이들은 아예 세상밖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세상 안으로 한 발쯤 걸쳐있거나 아예 세상 안으로 편입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영웅인 조용 자신이다. 조용은 세상 밖의 사람인 월경대사나 철관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칼과 갑옷, 용마를 얻고,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편입을 시도하는 일대이대삼대와 싸우기도 한다.

설의 구조와 작가의식,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새문사, 2005.에 잘 정리되어 있다.

14) 그 어떤 소설도 당파싸움 과정에서 전개되는 치열한 싸움에 비할 것이 없다. 설령 조용의 영웅적 행위조차도 그러하다.

이러한 조웅의 형상과 동질적인 서사체는 아기장수 전설이다. 단정적으로 말해 세상 밖 사람으로서 조웅은 아기장수의 변형이다. 신이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 몰락할까봐 두려워한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아기장수 전설은, 세상을 구원하러 하늘이 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가 오히려 그 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다. 아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 내려왔던 구원자가 맞본 비극이다.

하지만 아기장수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 아기장수 전설에는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멀리 떠나가버리는 유형도 있다.¹⁵⁾ 이렇게 떠나간 아기장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조웅이나 일대이대삼대처럼 자신의 힘에 맞는 학문과 도술을 닦아 힘을 쓸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릴 적 탁월함을 보여준 조웅의 모습에는 너무 일찍 힘을 보여준 아기장수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조웅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신형 찬탈자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다. 하지만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스승 월경대사와 철관도사를 만나 학문과 도술을 닦아 아기장수는 실제 장수 곧 영웅이 된다. 그 과정에서 아기장수는 장수가 되기 위해 예비된 칼과 갑옷, 용마를 얻는다.

이렇게 보면 세상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어릴 때 꺾여버린 아기장수와 역시 세상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태어나 어릴 때 꺾일 뻔 했으나 구원자를 만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조웅의 일생은 확실히 닮아있다. 조웅은 떠나간 아기장수가 살아난 뒤의 이야기인 셈이다.

조웅전에서는 특이하게도 떠나간 아기장수가 더 나온다. 조웅의 적대자인 일대이대삼대가 그들이다. 이들은 조웅보다 훨씬 더 아기장수의 조건을 갖추었다. 훌륭한 도사 스승 밑에서 무술을 닦은 그들은 이대는 신장을 겸한 곧 신장이자 동시에 세상 사람이었고 삼대는 왼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장수였다. 이것이야말로 아기장수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보통 아기장수는 날

15) 진경환·우응순 외, 「19세기 반봉건 항쟁의 문학」, 『고전문학 이야기주머니』, 녹두, 1994.

개를 인두로 지지면 힘을 잃게 된다. 이들 또한 살아남은 아기장수들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패배하고 만다. 상대인 조용 또한 살아남은 아기장수로 그들만큼이나 강력한 힘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조용과 이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들의 스승이 세 사람을 설득하러 와서 하던 말 중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¹⁶⁾ 때는 조용의 때이지 세 사람의 때가 아니니 산중으로 돌아가 기다리면 때가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세 사람은 이 말을 거부한다. 때라는 것은 영웅이 활동할 수 있는 때이다. 그것은 백성의 운명의 총합인 천하국가가 멸망 내지 멸망 직전에 있는 때이다. 거기에서 그것을 구원할 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그럼 때는 언제 오는가? 그것은 모른다. 사실 조용의 스승인 월경대사나 철관도사, 일대이대삼대의 스승인 도사 또한 살아남은 아기장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리며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인재들 키우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¹⁷⁾ 일대이대삼대나 조용에게 때가 오지 않으면 이들 도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대이대삼대는 때를 기다리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단순히 거부하기만 하고 세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을 나름대로 선택을 했다. 우선 조용에게 죽은 숙부 태산부 자사의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조용을 죽이고 공을 세워 이두병 정권에 편입하려 시도한다.¹⁸⁾

16) 복지사죄왈 소즈등이 엿지 스제간 분의를 안다호오릿가. 선싱썸 하직도 안읍호고 임의로 출세호여사오니 죄스무석이로소이다. 도사 길이 탄식왈 그디등은 망발상의 호엿도다. 호날이 그디 삼형제를 너시미 반다시 디사를 당코자 호미요 쏘호 너 그디를 안나 천시를 알아 지시호미여늘 그디 엿지 너말을 듯지 안이호고 자당 출세호니 저 군병을 퇴송호고 손중으로 드러가즈 호니

17) 이종은 역주, 『해동전도록·청학집』, 보성문화사, 1992. 이 책들은 때를 기다리는 도사들의 이야기이다.

18) 신등 삼형제 일홈이 일디 이디 삼디라. 비록 지조 업사오나 조용은 두렵지 안이 호오니 복원 황상은 일지병을 주시면 반직 조용을 스로잡아 패하의 바치리이다 호디 상이 디히호사 직시 군사 오십만을 조발호여 일디로 디원수를 봉호시고 이디로 부원수를 호시고 삼디로 선봉장을 호시고 빅모황월과 용정봉기며 전포

아마 이들 세 사람의 문제는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고보다 이 선택에 있었을 것이다. 우선 이들의 숙부 태산부자사는 이두병의 충실한 신하로 송태자를 약을 먹여 죽이려한 인물이다. 당연히 조웅전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물이다. 또한 이들은 이두병에게 붙어 부귀를 추구한다. 부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부귀가 황위를 찬탈한 이두병이 주는 부귀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들 세 사람은 살아남은 아기장수로서 능력과 힘을 구비하고 있다. 그들의 힘은 조웅이나 강백보다 더 강력하여 도사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패배했을 지도 모른다.¹⁹⁾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명백히 조웅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조웅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만 이들은 간신 이두병의 충신이었던 숙부의 복수와 부귀를 추구한다.

조웅은 살아남은 아기장수로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자신의 타고난 사명에 충실하다. 반면에 이들 세 사람은 살아남은 아기장수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부귀를 바랐던 것이다. 그 어떤 능력보다 구원자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형을 가하는 것이 조웅전의 모습이다.

어쨌든 조웅전에서는 조웅의 적대자로서 조웅과 비슷한 능력을 소유한 세

인검을 주시고 호교호시되 경등이 심을 다호야 국가를 평정호라. 만일 국가 평정호고 조웅을 잡아 바치면 장춘 강산을 반분호리라. 상이 친이 잔을 잡아 원슈를 전송호시니 이디 삼형제 황운을 축사호고 물너나와 제군을 호령호여 나오가니
19) 팔십여호의 승부를 결단치 못하니 원수 기력이 점점 쇠진호야 성세 가장 위티호지라. 말머리를 두로여 본진으로 흥코져 호더니 이디 칼을 들너 가는 길을 막고 크게 쫓지져 왓 필부 조웅은 어디로 가는다. 오늘날 네 머리를 베혀 망형의 혼백을 위로호리라 호고 칼을 드러 치려호거날 원수 평칭 기력을 다호야 빅마철인검으로 이디의 칼을 드러 치며 축귀문을 고성티독호니 이디 디경호여 칼을 마호의 더지거날 원수 그제야 쇠잔호던 괴운을 식로이 가다듬어 다시 칼을 들어 이디의 목을 치니 머리 마호의 나려지며 천지 아득호며 운무 히명호며 지척을 분별치 못호난지라. 원슈 축귀문을 구불전송호여 고성티독호니 풍우 지식호며 문득 보니 호 팔척 신장이 울며 공중으로 날아가거날 원수 놀니여 심각호되 이디난 반다시 신장을 접호엿도다 호더라.

사람을 등장시켜서 군담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그런 점에서 조용은 행복한 주인공이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부귀를 탐한 적수들을 쳐부수어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영웅소설들이 적대자다운 적대자를 구비하지 못한 대신 조용전은 이들 세 사람을 등장시켜 군담과 구원자의 사명 양쪽 모두를 완전하게 하는 작품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4. 세 종류의 여성

조용전에는 세 종류의 여성이 나온다. 어머니인 왕부인과 부인 장소저, 기생 금련과 매월이다. 딸 그대로 여러가지 고난 속에서 꾀맛하게 자신을 지키다가 결국은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여성들이다.

영웅소설이 가부장제의 총합인 천하국가의 안정을 결말로 삼는 군사적 영웅의 성공을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여성의 행복한 결말도 그안에서 해결되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나마 이들 여성의 행적은 놀라운 데가 있다.

먼저 왕부인을 보기로 한다. 조용전에서는 영웅 조용의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영웅이 아직 영웅으로서 성장하기 전 나이가 매우 어렸을 때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영웅의 보호자 역할을 상당부분 감당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다보면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실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어린이는 몸이 어린이지 행동이 모두 어린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작품 속 왕부인이 겪는 사건은 영웅 조용이 어린 시절 겪는 사건과 거의 일치한다.

조용이 태어나기 얼마 전 왕부인의 남편 좌승상 조정인은 이두병의 참소를 참다못해 자결하고 만다. 이후 아들 조용이 7세 때 궁궐에 불러들어가 뒷날 어른이 되면 등용하리라는 송문제의 약속을 받는다. 하지만 8세 때 송문

제가 죽고 이두병이 황위를 찬탈하자 조웅은 핫김에 궁궐 문에다 이두병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 적는다.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신선의 배를 얻어 타고 멀리 도망가 모면한다. 이때부터 왕부인의 고난은 시작된다.

어느 마을에 이르러 혼자 사는 여인에게 의탁하여 지내다가 조웅의 나이 9세 때 왕부인의 미모를 탐한 이 여인의 중매를 거절하고 다시 방랑길에 오른다. 이후 3년을 방랑하다가 12세 때 조정인의 화상을 그려준 월경도사를 만나 구원을 얻는다. 이 시기 머리를 깎고 중 행세를 하고 군도가 마을을 습격하자 조웅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는 등 고난을 당한다. 조웅은 월경도사 아래에서 3년 동안 학문과 술법을 배운다.

이때부터 왕부인은 월경도사의 절에서 편안히 있게 된다. 이 이후로 왕부인은 거의 안 나오게 된다. 영웅인 조웅이 전쟁 등 본격적인 영웅의 행동이 시작하므로 왕부인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다. 한편 조웅을 아기장수의 변형으로 보면 이때부터 아기장수는 집을 나가 자신의 힘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집안과는 단절되는 것이다.

조웅은 15세 때 밖으로 나가 철관도사를 만나 검술과 도술 등 영웅으로서의 수업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소저와의 인연을 이룬다. 이후 16세 때 다시 나가 서번의 침략을 받은 위국을 구원하고 죽기 직전의 송태자를 구원하여 위국으로 돌아온다. 중간에 잠깐잠깐 절에 들러 왕부인을 보러 온다. 이 과정에서 장소저가 강호자사의 뺨박에 쫓겨 월경대사의 절을 찾아오고 고부가 알아보는 과정이 나온다. 왕부인 자신과 똑같이 흘러 다니는 신세가 된 며느리를 얻는 것이다.

조웅은 다시 출정하여 자신의 군대를 갖고 동지 강백을 만나 여러 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하고 결국 황성까지 진격해 이두병을 사로잡는다. 결국 송태자가 황위에 오르고 조웅은 서번왕이 된다. 당연히 왕부인은 서번왕의 대비, 장소저는 서번왕비가 된다.

영웅 조웅의 어린 시절 각 시기마다 보호자이자 동료로서 왕부인의 역할은 조금씩 달라진다. 처음 좌승상의 부인으로서 왕부인은 조웅을 아무 염려

없이 키워낼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몰락하여 떠돌아다니게 되자 귀부인인 왕부인은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딸 그대로 무력한 존재이다.²⁰⁾ 그녀는 거의 어린 조용만큼이나 무력하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증으로 변장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고작이다.²¹⁾

그러다 월경대사를 만나 절에 정착한 다음부터 그녀는 딸 그대로 小安을 얻게된다. 월경대사를 만난 것은 그녀가 조정인의 화상을 그려준 월경대사에게 천금을 회사했던 선업의 결과이다. 이후 그녀는 아들 조용의 활약에 따라 점점 지위가 높아지다 결국 서번왕의 대비까지 된다.

그녀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남편 조정인의 부인일 때 그녀는 조정인의 그늘에서 편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정인이 죽고나서 몰락하게 되자 그녀는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내던져진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고 소안을 얻게 되자 그녀는 아들인 영웅 조용의 활약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고 말면 왕부인의 역할을 너무 축소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고난의 시기뿐만 아니라 월경대사와 지내면서도 조용의 뒷배경 역할을 단단히 한다. 다시 말해 조용이 성장하는 10대 초반에서 중반의 시기

20) 궐을 썬나 응을 다리고 촌촌전진하야 슈십이을 흥하이 발이 붓고 괴운이 거복 흥지라. 응이 모친 거동을 보고 짐을 합쳐 모다 지고 안즈며 일며 계오 십이을 ㄱ 쥬점을 츠즈 쉬고 또 잇튼날 집을 갈나지고 반실이 되도록 가되 쥬점이 업 난지라. ㄱ장 비곱과 진력하여 길가의 안져더니 마춤 기상갓이오거늘 응이 반겨 요귀을 청흔니 그 슝이 말기 나려 왈 닉 집이 가자 흥면 흥가지로 가미 조흐 되 무가닉하로다 흥고 걸낭의 다과을 닉여 쥬거늘 응이 치스흥고 차과을 가지 고 도라와 모즈 요귀하니 기같은 면홀너라.

21) 왕부인이 증으로 변장하려고 머리를 깎는 대목은 조용전에서 가장 슬픈 대목이다. “부인이 흥장의 ㄱ식을 닉여 쥬며 왈 머리을 깎그라 흥니 응이 가시을 들고 머리을 깎그려 흥니 눈물이 소스나 츠마 깎지 못흥고 통곡하니 부인이 디척왈 닉 옛티 살기난 너을 위흥미라. 너난 비회를 업시흥고 날을 위로홀 거시여날 네 문져 너의 비회를 즈아너고 말을 듯지 안니 흥고 일상 거역하니 옛지 살이요 흥신덕 응이 저허 울음을 굿치고 ㄱ식을 잡아 머리을 깎그니 흥용을 츠마 보지 못홀너라.”

왕부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녀는 떠돌아다니면서 조옹을 이끌었으며 절에 있으면서도 월경대사와 함께 조옹의 뒷바라지를 담당한다.

이러한 왕부인의 일생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인물의 반영이었을까? 아마 당과싸움에 희생되어 하루아침에 몰락한 집안의 귀부인들의 고난이 실제 이터했을 것이다. 그녀들은 시가와 친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서 귀양 가는 모습을 겪는다. 심지어 자신과 집안의 딸들까지 관비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당과싸움 과정에서 이러한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풍비박산 집안은 남편이 속한 당과가 복권되면서 다시 부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귀양 간 남편의 부재 동안 집안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집안의 여자들이었으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왕부인의 형상에는 이러한 부인들이 풍비박산 난 집안을 끝까지 수호한 잊혀진 노력이 들어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은 서울에선 흔히 볼 수 있었다. 당과싸움에서 뒤집어지는 일은 3~5년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부인의 형상에는 이것 말고 다른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영웅소설의 독자 중 특별히 여성 독자들에게 관한 것이다. 흔히 남성들의 무용담으로 구성된 영웅소설을 여성들이 즐겨 읽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조옹전에서는 여성들이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온다. 바로 왕부인이다.

왕부인은 고난 속에서 금방 꺾일 듯 위태로운 인물이다. 그녀는 현실에서 무능력하며 중으로 위장하고 결식으로 유랑한다. 그녀는 눈물이 많으며 걸핏하면 눈물바람이다.²²⁾ 이것이 일반적인 왕부인의 상이다. 하지만 왕부인은

22) 왕부인은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격렬하게 우는데 특히 자신들이 천하에 수배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산중으로 도망간 대목은 그 중에서도 일품이다. “부인이 응을 붓들고 무슈이 통곡하니 청산이 옥넝하고 목석이 다 스러지는지라. 이통으로 밤을 지닌이 흐로 밤 식기에 눈이 붓고 얼골이 디뎌호여 달은 슝 갖더라. 날이 신들 어더로 ㄹ리요. 쯤호 기갈이 심호여 촌보를 움킬 지리 업는지라. 기진호여 울울호 풀 우의 누엇시니”

영웅 조용의 어머니답게 고귀한 품성을 지녔다. 그녀는 충신 조정인의 아내로서 한순간도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다. 또한 영웅 조용에 대해 어머니로서 사랑이 지극하다. 특히 항상 전쟁터를 전전해야 하는 영웅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조용전에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다.²³⁾

고귀하고 감정이 풍부한 품성의 여성이 현실에 꺾일 듯 꺾이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 어린 아들을 키워내 훌륭하게 출세시키는 것이 왕부인의 일생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여성을 손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바로 시집살이하는 여성이다. 가난한 집에 시집온 여성이 고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내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시집살이 서사이다.

행복한 소녀 시절을 마감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시집와서 시집살이하다가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시집살이도 점점 끝나가고 아들이 출세하면 덩달아 자신의 입지도 높아지고 등등…… 결국 겉모습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왕부인의 고난과 小安과 성공은 이 시기 여인네들의 시집살이의 극복과정과 일치하고 있다.²⁴⁾

왕부인의 고난극복의 시간은 그러기에 여성독자들 나아가 모든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영웅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용이 출전하면서부터 왕부인의 역할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이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통의 여인네들은 영웅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영웅의 출정 이후에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장소저를 보기로 한다. 장소저는 부친이 일찍 죽고 어머니와 함

23) 한 대목을 보기로 한다. “월경왈 금야의 일몽을 어드니 공즈를 맞나 수작흐옵고 벽상의 무어시라 괴록흐옵고 고성덕독헌난 쇼리의 씨다르니 흐 쏘미라……일일은 부인이 흐 쏘미를 어드니 범을 안고 잇시되 무섭지 안이흔지라……디스 이윽키 싱각하다크 크게 깃거왈 공즈의 거름이 빙이 안의 잇스오니 오날 진시예 맞느 보리이다. 부인왈 분명 그러홀 진디 나와 평심 너기를 정흐스이다……”

24) 이런 일생을 흔히 ‘자궁가족’의 형성을 통한 시집살이의 극복과정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편 여성 치산가사인 가사 복선화음가의 주인공의 일대기도 바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게 살면서 좋은 배필을 만나 집안을 일굴 꿈을 꾸는 소저이다. 어느날 밤 객으로 지나가던 16세 조옹이 한밤중에 규방으로 쳐들어와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된다.²⁵⁾

다음날 아침 조옹은 떠나가고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고 산다. 어느덧 조옹을 그리다가 병이 든 그녀에게 조옹이 다시 찾아와 목숨을 구해준다. 이후 강호자사가 새로 와서 재취 자리를 찾다가 장소저에게 청혼 하나 거절당하자 강제로 혼인하려 한다.

장소저는 어머니를 두고 혼자서 도망나왔다가 구원을 받아 월경대사의 절로 들어간다. 이후 조옹이 신포로 준 부채를 보고 왕부인이 며느리임을 알아본다. 집에 혼자 남았다 강호자사에 의해 옥에 갇힌 어머니마저 조옹의 구원을 받아 절로 오게 되어 모두가 만나게 된다.

장소저의 이야기는 조옹전의 중간 중간에 마디마디 끊어져서 들어있기에 언뜻 그 행적을 짐작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만 따로 추려놓고 보면 그녀는 전기소설의 여주인공의 한 변형임을 금방 짐작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남자만 보고 결연하는 모습이 우선 그러하다.

하지만 전기소설은 중간에 여러가지 고난을 겪고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장소저도 전기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사망만큼이나 다급한 현실의 고난을 겪는다. 다만 물에 투신하여 죽는 대신 아버지 장진사의 예언에 의해 왕부인이 있는 강선암으로 피난가서 살아나는 것이 다르다.

25) 이날밤 규방에 문득 쳐들어온 조옹과 장소저의 대화는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한다. “두 사람의 쇼세 형세 2장 급흔지라. 이윽기 심각하다가 익결할 요도속너 난 군즈의 호귀라. 첩인들 엇지 공방 독수를 조아흐리요마은 선영을 심각하니 구티 진스의 후예라. 부모의 명영 업습고 녹네를 힘치 못혀여소오니 엇지 허신 하여 선영의 죄인이 되고 문호의 욕이 밋소오면 엇지 살귀을 브라이요. 브라건 디 밋음을 두로혀 도라가 후귀을 정혀쇼셔. 웅이 드르미 말이 당연허나 2득흔 스랑이 염치를 가리와시니 예절을 엇지 분별허리오. 답왈 성현 문하의도 유장찬 혈지행이 잇습고 명영과 녹예난 제왕과 부귀인의 호사라. 너의 혈혈단신이 엇지 칠예을 바라리오. 다만 너몸이 미편 되고 상봉으로 녹네 삼아 빅년을 기약허는 이다 호고, 침금의 나아드니 문부투신지상이요 우물의 든 고귀라. 월양비취지낙을 뒤라셔 금허리오.”

조용전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두들 만나 행복하게 되는 낭만적 활력으로 넘치는 영웅소설답게 그녀를 사랑의 성공과 一家團聚의 결말로 이끈다. 이것은 물론 그녀가 끈기 있게 자신의 사랑을 믿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온갖 위협과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이다. 장소저는 전기소설의 여주인공의 뒤를 이은 후계자답게 대가 센 여성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생 금련과 매월을 보기로 한다. 금련은 조용이 송태자를 구하러 가는 길에 서번국에 들렀을 때 서번왕이 조용을 유혹하라고 들여보낸 歌妓이다. 하지만 그녀는 슬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신세를 밝히며 자신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한다. 그녀는 서번이 지난번에 위국과 전쟁할 때 잡혀온 포로였다. 조용은 그녀를 데리고 위국으로 가서 부모를 찾아주고 첩으로 삼는다.

매월은 귀양가있는 송태자를 모시라고 그 고을의 별장이 바친 歌妓이다. 내일이면 사약을 받고 죽을 운명의 송태자와 충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가 부르는 긴 노래는 감동적이다.²⁶⁾ 그녀는 조용이 송태자를 구해주자 송태자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 송태자의 후궁이 된다.

금련과 매월은 매우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여 비현실적인 것처럼 처리되어 있지만 실은 매우 현실적인 인물들이다. 부모를 잃고 기생의 처지에 떨어졌지만 끝내 부모를 찾아가는 기생이 금련이다. 반면 끝내 意氣를 잃지 않고 오히려 실의에 빠진 남자들을 북돋우는 義妓가 매월이다.

금련은 끝내 자신을 버린 국가를 구원하는 조용의 형상이다. 매월은 정치적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의기를 잃지 않는 송나라 의기 있는 신하들의 표상이다. 이 두 기생은 송나라 신하였다가 부모같은 송문제와 송태자를 버리

26) 조용전에 나오는 노래들은 따로 고찰이 필요하다. “옥도취 금도취 양풍나라 들 계 가라 벼히도다. 월궁계슈 벼히도다. 무위년이 계양도라. 모시도다 모시도다. 울이 황즈 모셔도다. 설이미 험가지에 광풍불어 쫓피도다. 모와도다 모와도다. 송조 충신 모와도다. 이연의 성윤희고 삼연의 성되려니 엇지타 걸쥬풍아. 다 실허 밭이도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늘임게 오날밤 오경시를 함지에 머무쇼. 못노라 야차시오. 소슬 혼풍 이려나며 열 충신 부여잡고 눈물노 하직하니 미구 혼니 안이신가. 바르느니 청슨 미화 모혜의 슈겨쥬요.”

고 부귀를 쫓아 이두병에게 돌아간 백관들에게 던지는 일침이다. 조웅전에서 이들 백관들을 용서하지 않고 모두 처형한 것은 이 두 기생의 대척점에 선 인물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조웅전에 나오는 여성들의 형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여성들은 작품 내에서 매우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왕부인은 조웅전의 전반부를 거의 책임지고 있는 부주인공격의 인물이다. 장소저와 금련, 매월 또한 역할은 작지만 이념 제시의 면에서 결코 만만찮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들은 그녀들 나름의 서사적 전통에서 이미 확립된 형상의 조웅전적 재현이다.

특히 이들 여성들은 매우 현실적 인물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조웅전은 영웅소설이라서 낭만적 환상에 휩싸여 쉽사리 작품이 들뜨기 쉽다. 이들 여성들은 중간중간에 등장하여 환상으로만 치달아가는 작품을 현실의 땅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 여성들의 역할이 있다 할 것이다.

5. 마무리

소설에서 서사체로 고전소설 연구의 중심시각이 옮겨진 것은 오래되었다. 하지만 소설이든 서사든 여전히 인물이 하는 행위와 인물들의 행위 복합인 사건이 그 중심에 놓여있다. 따라서 작품을 읽는데 있어 인물의 형상과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연구의 중심 영역 중 하나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조웅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 국가, 세외인, 여성에 속하는 조연들 몇 사람을 골라 그 특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웅인 조웅의 압도적인 활동에 의해 작품의 추동력이 독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연들 또한 의외로 자신만의 다채로운 색깔과 영역을 가지고 작품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웅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코 조웅전 내지 영웅소설 내에만 국

한된 인물들이 아니라 조선후기에 등장하는 여러 서사들에 등장하는 인물형상의 변형에 속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영웅소설 연구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건국신화에서 신소설까지 통시적으로 유효한 구조를 밝힘으로써 우뚝한 성과를 내었다. 이 글에서는 미약하나마 조웅전에 나오는 부차적인 인물들이 조선후기 여러 서사체에 공통된 인물형상이라는 공시적인 특질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이 글의 성과 여부에 상관없이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주제어 : 조웅전, 인물형상, 이두병, 권신형 찬탈자, 세외인, 아기장수, 기생, 영웅소설

<참고문헌>

- 경일남, 「조용전의 가상회 화소 수용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85,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65-86쪽.
-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 김현양, 「조선조 후기의 군담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
-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작가의식」,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새문사, 2005.
- 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영웅의 관계」,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2002.9, 283-315쪽.
- 안기수, 「영웅소설 조용전의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 『어문논집』 46, 중앙어문학회, 2011, 57-89쪽.
-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 윤경수, 「조용전의 신화적 수용 양상」, 『한성어문학』 19,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0, 151-172쪽.
-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방법론」,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이강엽, 「군담소설 서사구조론의 전개와 연구방향」,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새문사, 2005.
- 이승희, 「조용전과의 만남과 상상력 교육」,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용진, 「고전소설 조용전의 에듀게임(Edu-game)화 방안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조시중, 「조웅전의 작품구조와 그 수용적 의미」,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7.

최기숙, 「영웅소설 서사체계의 발전적 변모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3.

[Abstract]

A Study of Secondary Characters in ChoUng-Jeon

Kim, Yong-cheol

This Paper studies the secondary characters in ChoUng-Jeon. This types of character appear on the various narratives in the latter period of Choseon dynasty. And there are the variants in ChoUng-Jeon.

First, there are characters related to life and death of the whole empire. Lee Du-Byung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of this type. He usurps the imperial throne and persecutes Cho-Ung. He is a 'grandee usurpator' character. But he is actually incompetent and is defeated to Cho-Ung, finally.

Second, there are characters of hermit. They retire from the world and they possess the power of rescue to the world. But they wait his turn of rescue in a secluded place. Especially, the hero Cho-Ung and the antagonists Ildae, Idae, Samdea are hermits and the survived Agi-jangsus, the commander boy. They are a kind of the Saviors.

The last, there are the characters of woman. The lady Wang, Cho-Ung's mother, is a noble woman. She ruins and falls in the lower stratum. Then, she becomes incompetent and endures any kind of trials. Her life is similar to the one of Sijip-sali woman, who leads a hard married life.

The lady Jang, Cho-Ung's wife, is the transformed character of the heroine of Jeongi-sosul. She marries on her own authority and never yield to the adversity. Kisaeng Keumlyun and Maewol are the symbols of royalty. They don't miss their noble characters in any case.

ChoUng-Jeon is a hero novel and hero Cho-Ung plays a major role. But secondary characters play various and important roles, too. They present their

own ideology, either. In the future, we are actively studied of this secondary characters in the classical novel.

【Key words】 : ChoUng-Jeon, Character, Lee Du-Byung, Usurpator
Grandee, Hermit, Agi-jangsu, Kisaeng, A Hero Novel

김용철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연구교수

(627-705)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읍 청학리 50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전자우편 : bishma@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9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